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¹⁾

김형주 선임연구위원
연보라 연구위원
배정희 부연구위원

개요

- 조사목적** ▶ 본 연구는 5개년 연차별 연구의 5차년도 연구로서 한국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취업과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을 비롯해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 전반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 ▶ 본 연구는 5차년도 조사연구로서 만 18~34세의 국민 총 3,520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 남자 1,855명, 여자 1,665명, 18~19세 477명, 20~24세 1,095명, 25~29세 1,050명, 30~34세 898명
- 조사방법** ▶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 추출 틀로 활용하여 가구단위 개별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함.
- 조사기간** ▶ 2020년 7월 6일 ~ 9월 18일

1) 본 청소년 통계 브리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도 연구과제인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보고서의 일부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1 청년들의 주거 소유 및 집값 인식

- [주거 소유 및 집값에 대한 인식] '내 명의의 집이 꼭 있어야 한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긍정적 비율은 68.6%('그렇다' 52.5%+'매우 그렇다' 16.1%)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비율 13.3%('전혀 그렇지 않다' 2.5%+'그렇지 않다' 10.8%)에 비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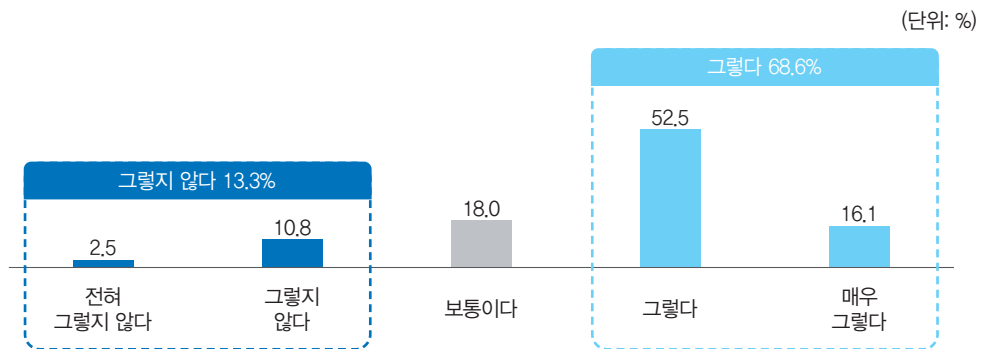


그림 1 평소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

-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85.2%('전혀 그렇지 않다' 46.5% + '그렇지 않다' 38.7%)로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 3.5%('그렇다' 3.1% + '매우 그렇다' 0.4%)대비 매우 높았음. 특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최근 3년간 크게 상승(2018년도 27.2% → 2019년도 35.7% → 2020년도 46.5%)하여 청년들의 집 값 수준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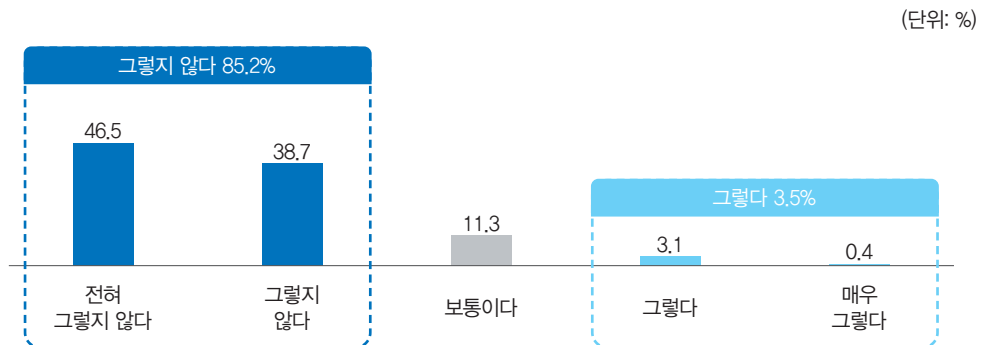


그림 2 지금 집 값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생각

- **[자가 소유의 필요성]** ‘본인 명의의 집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자가 소유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27.5%,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26.1%),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23.1%) 등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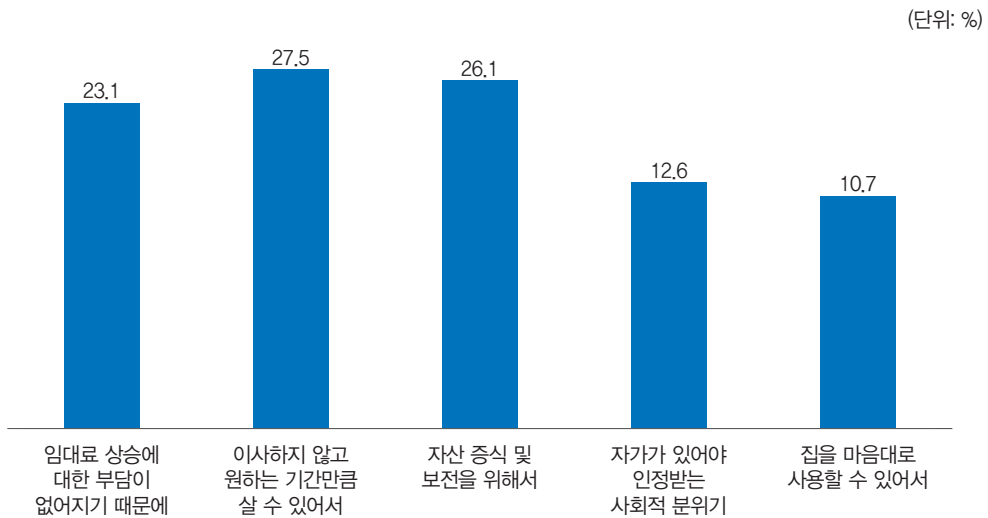


그림 3 자가 소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 의견은 여자(30.4%)가 남자(25.1%)보다 높았고, 부부가구 형태(3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의견은 남자(27.1%)가 여자(24.7%)보다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2 청년들의 주거 비용 마련 방법

- [주거 비용 마련 방법]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자가의 경우 주택 구입비,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물어봄. 그 결과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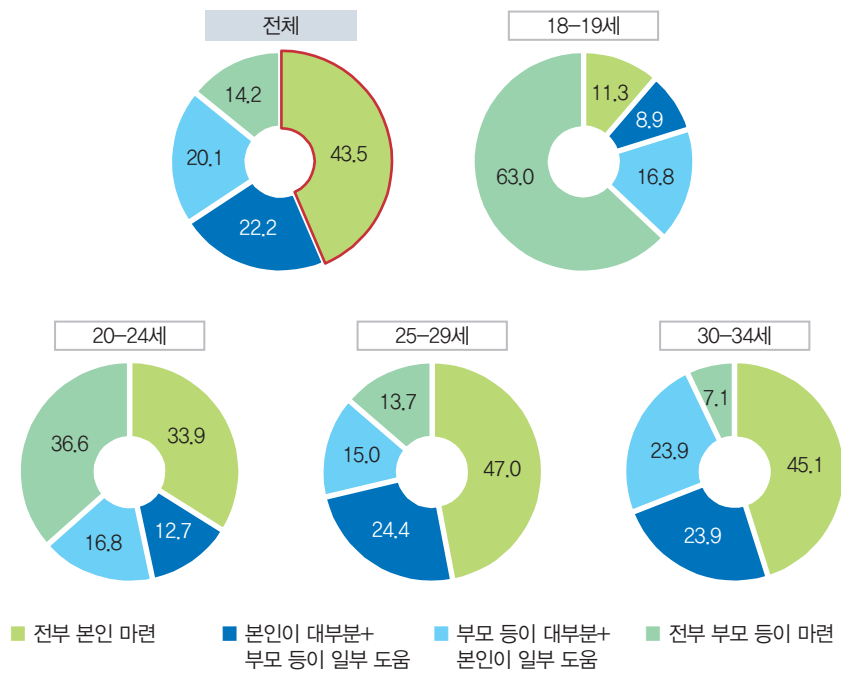


그림 4 주거 비용 마련 방법

- －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와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었다는 응답에서 1인가구 형태의 경우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는 응답 비율이 5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부부가구 형태의 경우 본인 스스로(36.8%), '본인이 대부분 + 부모 등이 일부 도움'(28.6%), '부모 등이 대부분 + 본인이 일부 도움'(26.4%)의 응답 비율이 고르게 높아, 집값 상승과 경제적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기혼자 주택 마련에는 부모님(또는 친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음.

- **[월세 비용 마련 방법]**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가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 주거비용과 마찬가지로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는 응답이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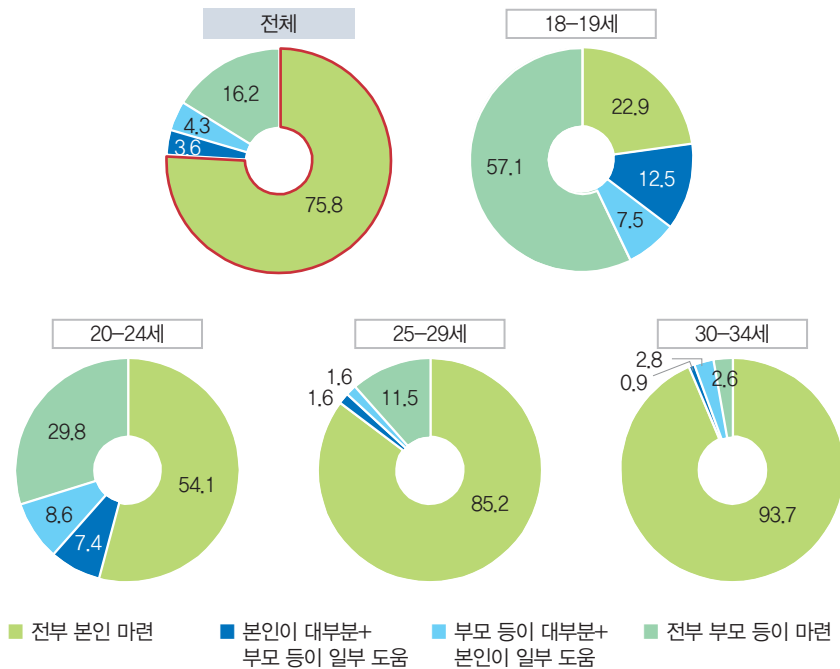


그림 5 월세 비용 마련 방법

- －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었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인가구, 부부가구 형태 모두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3 청년들의 주거 선택과 집의 의미

■ **[주거 선택의 주된 이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선택한 주된 이유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물어보았는데, 1순위 기준으로 '주택위치' 때문에 거주 중인 집을 선택했다는 응답 비율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비용'(28.1%), '주택유형'(16.7%) 등의 순이었고 1,2,3순위를 모두 합산한 응답 결과 역시 1순위 기준 응답 순위와 동일 순위(1위 주택위치 77.3%, 2위 주거비용 66.9%, 3위 주택유형 55.6%)인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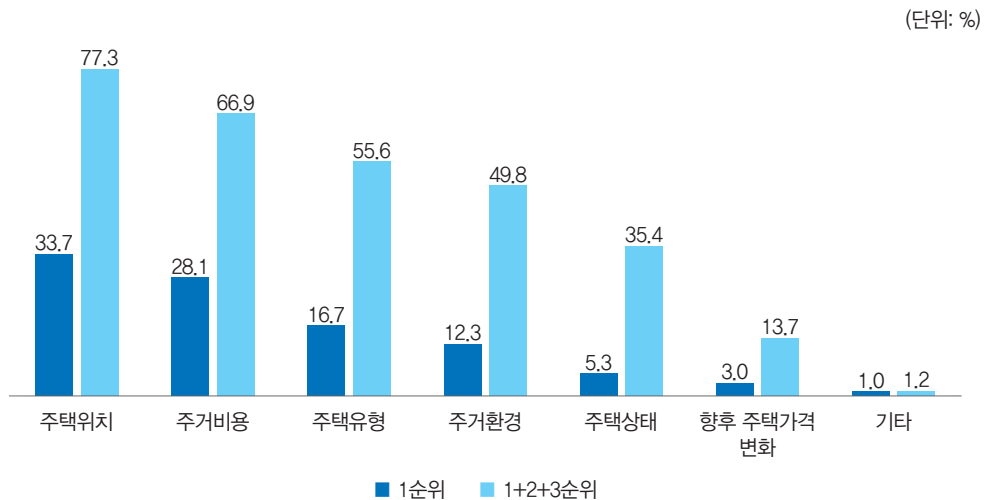


그림 6 현재 집을 선택한 주된 이유

– 주택위치를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비용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30세~34세(31.1%) 다음으로 18~19세(26.7%)에서 높게 나타나 자가, 전세 비중이 높은 30대 이상 청년들과 경제력이 부족한 18~1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집의 의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물어보았는데, 1순위 기준으로 집은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이라는 응답 비율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휴식의 공간'(24.5%),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23.4%) 등의 순이었음. 1,2,3순위를 모두 합산한 응답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응답 비율이 7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휴식의 공간'(73.4%),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55.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순위 차이는 있지만 상위 3개 응답은 동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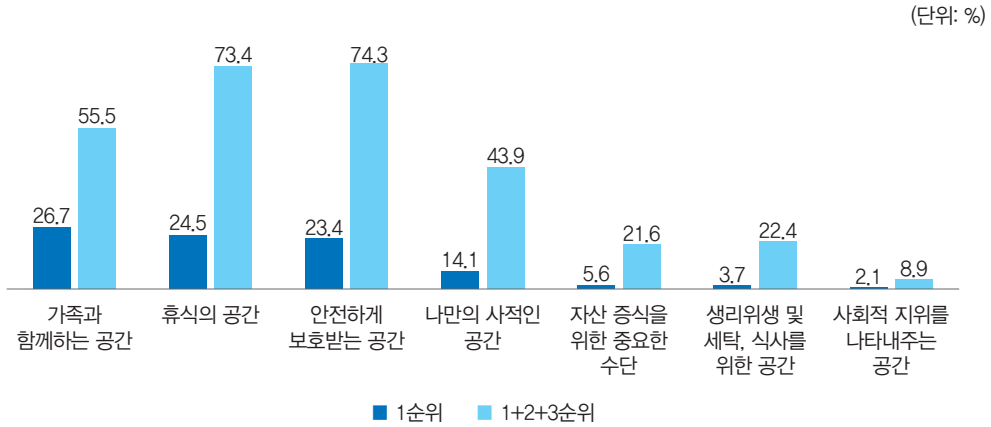


그림 7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

- 1순위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가구 형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집은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인가구 형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집이 휴식의 공간으로서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과 가구구성원에 따른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4 청년들이 생각하는 주거 정책

- [주거 정책 인지도] 부모 비동거 및 독립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 4가지의 주거 관련 정책별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는데, 그 결과 '청년 주택공급 정책'을 안다는 응답 비율이 6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44.7%),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38.0%),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21.7%)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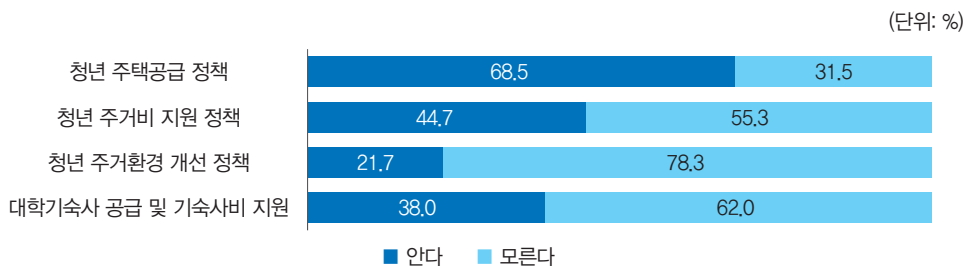


그림 8 청년 주거 정책 인지도

- 전반적으로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을 제외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책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주택공급 정책, 주거비 지원 정책 등 직접적인 지원의 경우에는 특히 경제활동 연령대인 20대 후반부터 인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 **[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한 주거 정책]** 부모 비동거 및 독립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향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청년 주택공급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6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23.2%),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7.6%),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6.2%) 순이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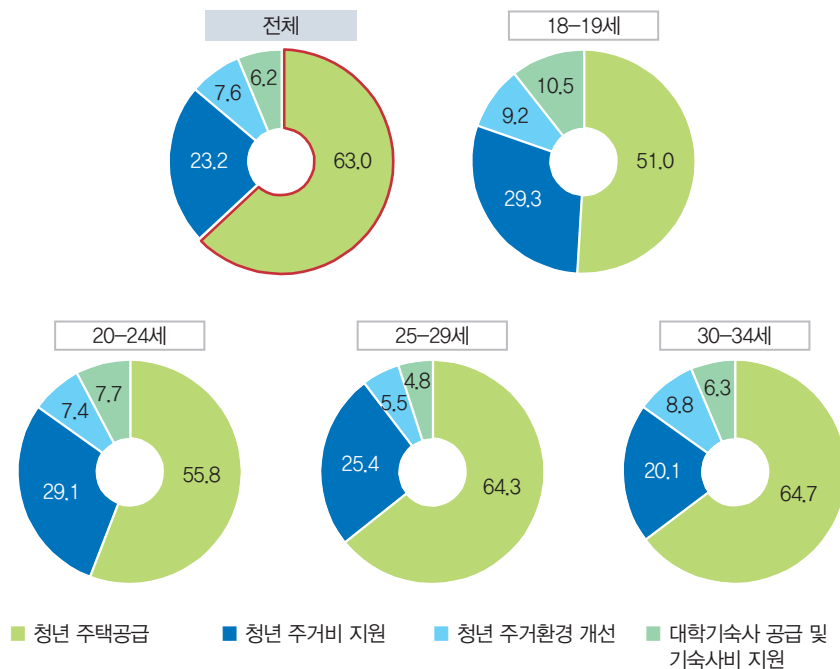


그림 9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청년 주거 정책

- 청년 주택공급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면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